

미미 "입냄새 안 나는 사람이 이상형"

등록 2026.05.16 00:00:00



[서울=뉴시스]예능 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사진=SBS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그룹 오마이걸 멤버 미미가 자신의 이상형을 고백했다.

18일 오후 10시10분 방송하는 SBS 예능 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에는 미미와 코미디언 김지유, 그룹 빌리 멤버 츠키가 출연한다.

이날 미미는 "마지막 연애가 17살이었다. 부족한 연애 경험은 만화책으로 채우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어 "지금 연애하면 무조건 결혼까지 해야 한다. 자본 있고 키 크고 무조건 입냄새 안 나는 사람이 이상형인데 아직 못 만났다"고 덧붙인다.

일본인인 츠키는 탁재훈을 향해 "형사인데 배우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그에게 굴욕을 안긴다.

탁재훈은 "너무한다. 언젠가 복수할 것"이라고 받아친다.

김지유는 "마음에 드는 남자 쪽으로 고개를 젓혀 쇠골을 어필한다"며 자신만의 '플러팅' 방법을 소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